

8

클래식과 친해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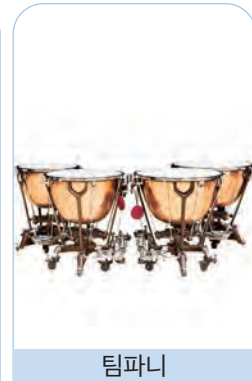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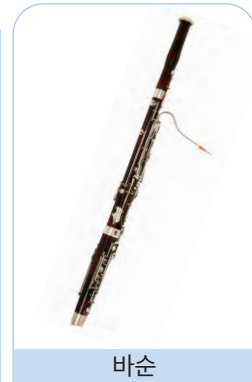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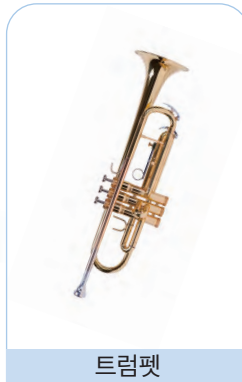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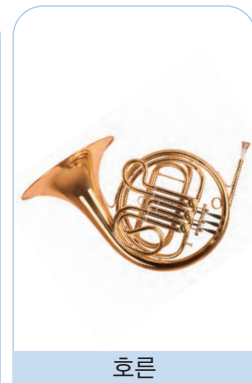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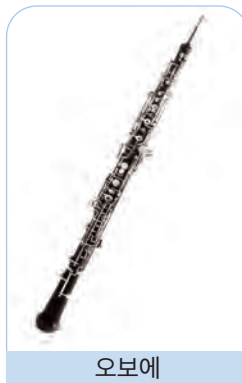


◆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성을 알고 글을 써 봅시다.



오케스트라 악기 중 목관악기는 어떤 것인지 찾아봅시다.

목관악기는 자연에서 나오는 도구로 자연의 울림을 재연하는 악기입니다. 목관악기는 리드를 이용하거나 직접 취구에 입을 대고 진동으로 소리를 냅니다. 나무나 금속을 재료로 만듭니다.



마음을 홀리는 오보에

오보에를 잘 모르더라도 악기의 음색을 들어보면 떠오르는 곡이 있습니다. 바로 방송에 나와 아름다운 선율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 「넬라 판타지아」입니다. 「넬라 판타지아」는 영화 음악을 재구성한 곡으로 원곡의 이름은 「가브리엘의 오보에」입니다. 영화 「미션」은 선교사가 오보에를 가지고 오지에 있는 원시인 마을에 들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인데,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오보에 소리로 그들의 마



음을 얻는다는 설정입니다.

플루트나 클라리넷과 같은 다른 목관악기로도 충분히 가능한 설정이었을 텐데 굳이 오보에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이였을까요? 그 이유는 오보에의 역사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 중세 시대 교회에서는 실제로 오보에 연주가 금지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시대 교회에서는 모든 악기가 배척을 받았지만 오보에는 아름다운 소리로 사람의 마음을 홀릴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오보에는 독특한 음색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악기에서 찾아보기 힘든 오묘한 음색입니다. 오보에의 독특한 음색은 수많은 소리가 섞여 있는 가운데에서도 존재감을 발휘할 정도로 영향력이 큼니다. 따라서 다양한 음이 어우러져 있을 때 혼자서 독특한 소리를 낸다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소리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마치 모두가 “네!”를 외칠 때 혼자 “아니요!”라고 주장하며 튀어 보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보에는 독특한 소리 때문에 어디를 가나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런 현상은 오케스트라에서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오보에

오케스트라가 나오는 클래식 연주회를 보러 가면 항상 첫 번째 음으로 들리는 소리가 오보에의 ‘라’ 음입니다. ‘라’ 음은 가장 기본적인 음으로 모든 악기가 이 음정에 맞춰 조율합니다. 음의 기준을 제시하는 악기가 오보에입니다. 오보에가 기준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독특한 음색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가장 튀기 때문에

다른 악기들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오보에가 오케스트라 모두에게 똑같은 수준의 음정을 들려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트럼펫 못지않은 소리 전달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토록 매력적인 악기인 오보에는 어떻게 발견되고 유래된 것일까요?

오보에는 기본적으로 두 입술을 다 사용하는 겹리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예민하고 섬세한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진동으로 나무를 울려 소리를 내는데 음색이 굉장히 밝고 소리 전달력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높은’이란 뜻을 가진 프랑스어 ‘오’와 ‘나무’라는 뜻을 가진 ‘보이스’가 합쳐진 ‘오보에’입니다. 말 그대로 높은 소리를 내는 나무입니다. 실제 프랑스어 발음으로는 ‘오보아’인데 약 1770년부터 지금의 오보에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영화 「미션」의 주제곡 「가브리엘 오보에」를 들어 보면 오보에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클래식을 추천하자면 오보에 소리가 돋보이는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4번 2악장」입니다. 처음에 오보에가 멜로디를 이끌어가면서 들려주는 특유의 음색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1 「마음을 홀리는 오보에」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 1 과거 중세 시대 교회에서 오보에 연주가 금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2 오케스트라 연주회에서 항상 첫 번째로 들리는 소리는 무엇인가요?

- 3 「가브리엘의 오보에」나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제4번 제2악장」을 듣고 오보에 음색에 대한 생각을 써 봅시다.

2 오보에의 특징을 분석해 설명한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해 봅시다.

역사	
오케스트라와 음색	
이름의 유래	

3 괄호 안의 낱말 중 맞춤법에 맞는 말을 골라 ○표를 해 봅시다.

- 오보예를 연주하던 사람은 갑자기 나를 보고 (알은체 / 아는 척)했다.
- 그 사람은 악기에 대해 무척 잘 안다는 듯 (알은체 / 아는 척)했다.

▶ ‘알은체’는 사람을 보고 인사하는 표정을 짓는다는 뜻이고, ‘아는 척’은 지식을 과시하거나 어떤 사실을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할 때 쓰는 말입니다.

4 목관악기 중 하나를 골라 특징이 드러나게 설명해 봅시다.


.....

.....

.....

.....

.....



5 다음 글을 읽고 클래식과 친해져 봅시다.

음악 용어만 알아도 이탈리아를 여행할 수 있어요

음악 용어는 대부분이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다. 그래서 충분하진 않지만 몇몇 음악 용어는 여행할 때 쓰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렇다.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이다.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단어는 무엇일까?

‘빨리빨리’다. ‘프레스토(Presto)’는 ‘아주 빠르게’라는 음악 용어다. 상황이 급할 때 “프레스토! 프레스토!”라고 외치면 된다. 현지 억양으로는 “쁘레스또!”라는 발음에 가깝다.

만일 어딘가 가야 하는 상황에서 택시를 탔다면 이렇게 외쳐 보자.

“쁘레스또!”

여행의 또 다른 묘미는 음식이다. 이탈리아에 가면 당연히 피자나 파스타를 먹어 보게 될 것이다. 맛있게 식사한 뒤에 달콤한 후식이 필요해진다. 여기서 이 디저트를 ‘돌체(Dolce)’라고 한다. 돌체는 ‘달콤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음악 용어에선 ‘감미롭게’라는 뜻으로 쓰인다. 달콤한



노래라는 이미지가 떠오를 것이다. 실제로 메뉴판에 보면 ‘Dolce’라고 영문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부터가 디저트 목록이다. 이탈리아의 레스토랑에서 충분히 식사를 마쳤다면 점원에게 우아하게 외치면 된다.

“돌체!”

‘살살’, ‘부드럽게’, ‘소곤소곤’, ‘약하게’ 등 강도가 약한 느낌을 이야기할 때는 ‘피아노(Piano)’라는 단어를 쓰면 된다. 현지 억양으로는 “삐아노”에 가깝다.

반대로 강도가 강한 뉘앙스가 필요할 때는 ‘포르테(Forte)’라는 단어를 쓰면 된다. 이러한 썸여림 기호의 명칭 역시 활용의 여지가 있다.

이처럼 클래식에서 쓰이는 음악 용어만으로도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클래식을 풍요롭게 느끼고 싶다면 음악 용어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듯 여행도 마찬가지다.

여행을 가서 그 나라의 문화를 온전히 느끼고 즐기고 싶다면 언어에 관한 공부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자.

클래식 공연장에서 박수는 언제 칠까요

“브라보!” 많은 박수와 함께 클래식 공연장에서 흔히 듣는 환호다.

남자 성악가에게는 ‘브라보(Bravo)’, 여자 성악가에게는 ‘브라바(Brava)’, 남자와 여자 성악가 모두에게는 ‘브라비(Bravi)’라고 환호한다. 이처럼 오페라에서는 성악가의 노래가 끝났을 때 항상 박수와 환호를 보낸다. 하지만 오케스트라 연주에선 악장과 악장 사이에는 박수를 삼가고 음악이 모두 끝난 뒤에 손뼉을 쳐야 한다. 또 실제로 미리 그렇게 공지를 한다. 문제는 어느 부분이 악장의 끝이고 또 어느 부분이 음악의 끝인지 잘 모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클래식 공연장에서는 흔히 두 가지 유형의 박수 스타일을 엿볼 수 있다.

은어로 ‘눈치 박수’와 ‘안다 박수’ 이렇게 두 가지다.

눈치 박수는 옆에서 하면 따라 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두 명의 박수가 시작되면서 모두 같이 따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럼 처음 시작은 누구일까? 바로 안다 박수를 하는 사람이다. 곡을 잘 알기 때문에 끝나는 타이밍에 자신 있게 손뼉을 치는 이들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자칫 모두에게 민폐를 끼칠 수 있다. 음악이 모두 다 끝나더라도 몇 초간의 잔향이 남기도 하는데 그 순간마저 음악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 가장 쉽고 정확한 박수의 타이밍은 참 간단하다. 바로 연주가 끝나고 연주자나 지휘자가 인사를 할 때 마음껏 박수를 해 주는 것이다. 출연자가 인사하는 순간에만 박수와 환호를 보내고 나머지 시간은 오로지 클래식을 감상하는 데 할애하면 된다.



배움 다지기

-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성을 알고 글을 썼나요?

